

사례13. Mesenteric lymphangioma의 CT 및 MRI 소견

개나리 병원의 홍길동은 진달래 병원 임격정과 함께 희귀질환인 ‘Mesenteric lymphangioma의 CT 및 MRI 소견’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4년 국내학술지에 영문으로 게재하였다. 개나리 병원의 홍길동이 제1저자와 책임저자를 겸하고 있었다. 연구기간은 1998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총 5년이었고, 대상 환자는 두 병원 환자 합하여 7명이었다. CT는 7명 모두에게, MRI는 4명에게 시행하였다. 논문에는 CT사진 3장, MRI사진 3장이 게재되었다. 같은 시기에 홍길동은 단독으로 국제학술지에 영문으로 ‘Mesenteric lymphangioma의 CT 소견’이라는 논문을 2004년도에 게재하였다. 연구기간과 대상 환자는 동일하였고, MRI 검사에 대한 소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CT사진 4장이 게재되었고 3장은 중복이었다.

구성 요소별 판정

항목	내용	판정
저자와 소속	두 병원 2명 저자 중 책임저자가 단독저자로 제2논문 출판	저자 1명 동일
가설	Mesenteric lymphangioma는 MRI와 비교하여 CT 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동일
대상	연구기간 1998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동일, 대상 환자 7명 동일	동일
연구방법	제1논문에서는 CT 소견과 MRI 소견을 분석하여 발표, 제2논문에서는 CT 소견만을 분석 발표	부분적으로 동일
결과	Mesenteric lymphangioma는 CT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동일
새 정보	복강 질환에서 CT 소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MRI 소견은 보완적이기 때문에 새 정보 적음.	적음

추가 사항

항목	내용
발표 학술지 관련	국내학술지 및 국제학술지 접수 일이 한 달 차이 나므로 중복 투고
표	표 없음
그림	CT 사진 3장 동일
참고문헌	10개, 11개로 차이 있지만 10개는 동일
연구비 기술	모두 기술 없음

해설

항목	내용
중복출판	동일 증례 2회 보고하여 새 정보가 거의 없음 • 유형: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제
다른 윤리문제	• 저자됨: 두 개 병원 환자 합하여 논문 작성하고 공저자로 논문 발표 후 공저자의 동의없이 외국 저명학술지에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하여 유명저자 의심